

박연암 『열하일기』의 전승·번역에 반영된 크로노토프*

김경남**

〈차 례〉

1. 서론
2. 『연암집』 탄생과 전승의 시대 상황
3. 『열하일기』 보급과 번역의 크로노토프
4.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의 탄생과 전승 과정 및 『열하일기』 번역의 역사를 고찰하고, 『열하일기』에 대한 주요 완역본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암 문학은 정조 연간의 ‘문체반정’, 『열하일기』 소재 다양한 이야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실제 『연암집』의 탄생과 전승 과정, 『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1325)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하일기』의 성격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집이 처음 간행된 것은 1900년 창강 김택영의 『연암집』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간본은 전집이 아닌 발췌본이었으며, 1932년 박영철이 신활자본을 간행한 이후 널리 보급되었다. 이 문집에 포함된 『열하일기』는 1901년 김택영의 『연암속집』에서 일부를 다루었고,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 이 일기만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한 바 있다.

『열하일기』의 번역본은 1900년대 『황성신문』, 『대한자강회월보』 등에서 단편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번역은 1930년대 말 이운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번역은 일기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완역된 것은 1955년 리상호본, 1968년 민족문화추진회본 이후의 일이다. 이를 고려할 때, 1900년대 김택영본과 일부 역술본, 1930년대 박영철본과 이운재의 번역, 1960년 전후 『열하일기』 완역본의 출현 등은 연암 문학의 전승과 번역 과정에 작용하는 시대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연암집』과 『열하일기』 완역본은 그 자체로서 시공간 복합체로서 완결된 또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열하일기』 완역본 비교는 번역이 단순히 원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작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완역본을 대상으로 그 작품에 내재해 있는 크로노토프의 의미, 즉 시대의식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작품 내의 시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주제어: 연암 박지원, 연암집, 열하일기, 전승, 번역, 크로노토프

1. 서론

『열하일기(熱河日記)』는 조선 정조 때의 북학파인 박지원이 1780년(정조 4년)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萬壽節, 칠순 잔치) 축하 사절로 중국의 북경(당시의 연경)에 갔을 때 보고 들은 것을 남긴 견문기이다. 박지원은 자신의 삼종형(8촌 형)이자 사절단의 수장인 금성위 박명원의 자제 군관 자격으로 일행에 합류할 수 있었고 러허강(熱河江)까지 다녀온 감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기록물이 『열하일기(熱河日記)』이다. 이 책은 정본 없이 필사본으로 전해 오다가, 김택영이 1900년 『연암집』과 1901년 속집을 간행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932년 박영철(朴榮喆)이 신활자본으로 이 문집을 간행할 때 『열하일기』가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열하일기』에 대한 관심은 박지원이 연행 기록을 남길 당시, 이른바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부터, 김택영 간본(刊本) 이후, 이종준의 ‘소설 허생전’, ‘호질’(홍필주 述, 1907, 대한자강회월보 8호~10호)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이윤재의 ‘도강록’(문장 연재, 1946년 간행)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책의 친필본은 1986년 12월 22일 기증하였고 단국대학교 연민문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가원은 연암의 친필본인 ‘수사본(手寫本)’ 또는 ‘수택본(手澤本)’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판본을 조사하여 주석 및 번역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근거로 1968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역주본(『국역열하일기』)을 발행하였다.(이 책은 1973년 대양서점에서 재발행됨) 그 후 『열하일기』에 대한 완역본으로 1982년 윤재영 번역(박영사, 문고본), 2009년 김철조 번역본(돌베개) 등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가원 역주 이전인 1955년 리상호 번역본(국립출판사)이나 1978년 일본인 이마무라요시오(今村與志雄)의 일본어 번역본(동양문고, 도쿄) 등 여러 번역본이 존재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열하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심을 끈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정조 연간의 ‘문체반정’의 표적으로서 연암의 글쓰기가 갖는 근대성, 기행문 형식의 글이지만 다양한 수필, 소설, 시문 등을 내재한 문학성, 전승 과정에서 각 시대가 요구하는 풍자 정신과 연암 문학의 효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전 작품의 전승과 번역, 보급은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연암집』이 박지원 사후 96년에 출현한 것이나, 1900년대 창간 이후 간행된 것, 『열하일기』의 부분 번역으로부터 완역에 이르기까지의 전승·번역 양상도 마찬가지다. 특히 작품 번역은 시대와 사회뿐만 아니라 번역자의 손을 거치면서 한 편의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경우가 많다. 달리 말해 전승된 고전 작품집이나 번역물을 연구할 때, 그 작품집과 번역물에 대한 시대의식과 사회적 분위기, 작품에서 중시하는 시간과 공간 등에 좀 더 주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건축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개념을 다종의 『연암집』과 『열하일기』 번역본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윤숙희(2009)에 따르면, 이 용어는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 이론가 바흐친에 의해, “소설의 산문적 서술 체계에 잠재된 시간과 공간의 내적 관계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설뿐만 아니라 기행문, 좀 더 확장하여 전승된 고전 작품집 또는 번역가의 의도가 반영된 번역물 등에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암집』 전승과 보급, 『열하일기』의 번역 양상 등에 나타나는 시대의식과 사회적 분위기, 개별 작품집과 번역물에 작용하는 크로노토프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연암집』의 탄생과 전승의 시대 상황

1) 『연암집』의 탄생과 전승 양상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문집인 『연암집』에 소재한 기행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집의 이본(異本)을 고찰한 김혈조(1994) 「연암집의 이본에 대한 고찰」에서는, 연암집은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문헌 고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현재 통용되는 박영철본 연암집이 연암의 전 저작을 망라한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거의 완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박영철본 이외에는 딱히 다른 이본을 쉽게 구득해 보기 어렵다는 점, 연암의 글에는 워낙 난독처(難讀處)가 많아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발견한다 하더라도 으레 그런 것이려니 하는 연구자의 태도 등이 문헌 고증을 소홀히 했던 까닭으로 생각된다.”¹⁾라고 추측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암집』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고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집의 앞부분에 ‘자서(自序)’가 많으나, 이 문집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고, 1901년 창강 김택영이 교편한 『연암집』에는 ‘민병석’의 서문과 ‘이응익(李應翼)’의 ‘본전(本傳)’이 들어 있는데²⁾, 두 편의 글에서도 이 문집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본전’에 따르면, 『열하일기』는 연암이 안의현감으로 부임하기 전, 열하에서 돌아와

1) 김혈조, 「연암집(燕巖集) 이본(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17, 한국한문학회, 1994, pp. 157-158.

2) 이 책의 ‘본전(本傳)’은 ‘이응익 근서(李應翼 謹書)’로 되어 있으나, 1901년 김택영 간본 『연암속집』과 1922년 김승렬(金承烈) 보사본(補寫本)에서는 ‘본전’의 저자가 김택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응익의 ‘본전’과 김택영의 ‘본전’은 내용이 매우 유사하나 표현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두 글의 필자를 모두 김택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일기 수집 권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며, 『연암집』은 그가 서거한 뒤 96년 경사진신(京師摺紳)의 자금으로 손자 박규수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나타난다.³⁾ 이와 관련한 사항은 1901년 김택영 간본 『연암속집』, 1922년 김승렬 보사본 『연암집』에 수록된 ‘본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속집 및 보사본의 ‘본전(本傳)’]

돌아가신 뒤 90여 년 뒤, 경사 진신(京師摺紳)이 서로 자금을 모아 그 유집을 간행했는데, 논사(論事)를 중심으로 넷으로 하였다. 하나는 허생전으로 효종이 청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상소이다. 둘은 거제설(車制說)로 우리나라가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 빈유(貧竈: 가난하고 게으름)해짐을 기뻐한 것이다. 셋은 북학의서(北學議序)로 우리나라가 이용후생의 도리에 군졸함을 안타까워한 것이며, 넷은 서얼소 통소(庶孽疏通疏)로 우리나라 풍속이 험루(狹陋)를 숭상하여 인재를 버리는 일이 많음을 풍자한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은 여러 설(說)은 대개 당시에 배척되던 것으로 지금은 유효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특히 편저하여 후세에 이롭게 하고자 한 것이다. 박규수는 관직이 우의정에 이르렀다.⁴⁾

이 설명에 따르면 『연암집』은 사후 90여 년 뒤 경사진신(京師摺紳)의 거금(醵金)으로 간행되었으며 총 6집으로 ‘허생전’, ‘거제설’, ‘북학의서’, ‘서얼소 통소’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때 간행된 문집이 김택영 교편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데, 김택영 교편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3) 金澤榮 校編, 『연암집』, 출판지 미상, 1900.

4) 金承烈 補寫, 『연암집』, 필사본, 1922. ‘본전(本傳)’.

[김택영 교편본]

	권수	내용
연암집	권1	[시부(詩部)] 시고금체(詩古今體) 33
	권2	[문부(文部)] 표(表) 1, 의(議) 2, 서(書) 4, 서(序) 7, 제사(題辭) 1
	권3	[문부(文部)] 기(記) 18, 논(論) 4, 설(說) 1
	권4	[문부(文部)] 농설(農說) 21, 제문(祭文) 3, 애사(哀詞) 2, 신도비(神道碑) 1, 묘갈명(墓碣銘) 8
	권5	[문부(文部)] 묘갈명(墓碣銘) 4, 탑명(塔銘) 1, 사장(事狀) 1, 척독(尺牘) 19
	권6	[별집(別集)] 서(序) 2, 기(記) 3, 잡저(雜著) 2, 서(書) 1, 발(跋) 1
연암 속집	권1	[속집(續集)] 열하일기(熱河日記): 일신수필(駟汛隨筆), 경개록(傾蓋錄), 곡정필담(鵠亭筆談), 환희필담(幻戲筆談), 피서록(避暑錄)
	권2	[속집(續集)] 열하일기(熱河日記): 구외이문(口外異聞), 옥갑야화(玉匣夜話), 동란섭필(銅蘭涉筆)
	권3	[보유(補遺)] 서(書) 1, 문답(問答) 1, 서(序) 6, 기(記) 1, 묘명(墓銘) 2, 행장(行狀) 1, 소(疏) 2, 서사(書事) 1 [원집 보유(原集補遺)], 서(書) 1, 서(序) 2, 기(記) 1 [별집 보유(別集補遺)]

김택영은 ‘본전’에서 본래의 유집이 ‘논사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論事之大者四)’에 집중했다고 밝혔으나, 그 스스로 교편(校編)할 때에는 ‘시부’, ‘문부’, ‘별집’, ‘보유’의 전통적인 문집 체제를 따랐다.

이처럼 『연암집』의 탄생과 간행, 전승에 대한 고증이 쉽지 않듯이, 그 속에 들어 있던 『열하일기』에 대한 고증도 쉽지 않다. 다만 김혈조(200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하일기』의 문헌 고증은

강동엽(1988)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현전하는 『열하일기』의 이본은 대개 필사본이며, 20세기 초 활자화되었지만, 어떤 것을 정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가 연암 문학이 갖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연암의 아들인 박종채(朴宗采)가 『과정록(過庭錄)』에서, “그 체제가 한층 더 유희적이기 때문에 불식자(不識者)는 광대의 장난으로 도를 전하니 식자는 그것을 병이라고 여겼다.”⁵⁾라고 했듯이, 연암 생전이나 그 후 전승 과정에서 연암의 글을 드러내놓고 흥미롭게 읽거나 그것을 편찬하여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연암 문학의 전승 과정과 관련하여 강동엽(1988)에서는 『연암집』 출판 및 번역의 역사를 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연암 문학 출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암집 출판 사례]

구분	연도	발행장소	편찬 및 발행자	책명	책수	분량
목판 및 활자본	1900	서울	김택영(金澤榮) ⁶⁾	연암집 (燕巖集)	2책	초록 (抄錄)
	1901	서울	김택영(金澤榮)	연암속집 (燕巖續集)	1책	초록
	1911	서울 광문회	최남선(崔南善)	연암외집 열하일기	1책	전재 (全載)
	1912	서울 광문회	최남선(崔南善)	열하일기	1책	초록
	1914	서울	김택영(金澤榮)	중편 연암선생문집 (重編 燕巖先生文集)	1책	초록

5) 朴宗采, 『過庭錄』 卷1. 上 4쪽. 其體裁尤屬遊戲 不識者 以俳諧傳道 其識者 亦或病之.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조각, 1988. 10쪽에서 재인용.

	1917	중국 회남 (淮南)	김택영(金澤榮)	중편 박연암선생 문집	3책	전재
	1932	서울	박영철(朴榮喆)	연암집	6책	전재
필사	1922	미상	김승렬(金承烈) 보사(補寫)	연암집	1책	보사
영인	1956	타이완 (臺灣)	중화총서위원회 (中華叢書委員會)	연암집 중 열하일기	6책	전재
	1966	서울	경희출판사	연암집	1책	전재
	1974	서울	경인문화사	연암집	1책	전재
	2012	서울	문예원	연민문고 소장 박지원 작품 필사본 총서	20책	연민 문고
번역 (국역, 일본어 역)	1915	일본	아오야기 쓰나타로 (靑柳綱太郎)	연암외집 상 (燕巖外集 上)	1책	초록
	1946	서울	이운재 (李允宰)	도강록 (渡江錄)	1책	초록
	1956	서울	이민수 (李民樹)	연암선집 (燕巖選集)	1책	초록
	1991	평양	홍기문	박지원 작품집 ⁷⁾	2책	발췌
	2007	서울	신호열, 김명호	연암집	2책	전재

(강동엽 1988: p. 2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추가함. 번역본의 경우 『열하일기』는 뒤에서 별도로 제시함)

- 6) 강동엽, 위의 책에서는 김만식(金晩植) 외 23명으로 표기했는데, 현재 확인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소장본에는 김택영(金澤榮)이 편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익명의 심사자께서 확인해 주셨듯이, 이 판본은 1901년 김택영이 전사자 금속활자로 간행한 연암속집에 해당함.
- 7) 홍기문(1991), 『박지원작품집』1-2, 문예출판사, 평양. 이 번역본은 2004년 보리출판사에서 『나는 꺾꺾 선생이라오』라는 책명으로 한국 맞춤법에 맞게 수정·간행하였다. 익명의 심사자께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연암집』에 대한 관심은 1900년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이 『연암집』 2권과 1901년 『연암속집(燕岩續集)』 1권을 간행하면서부터였다. 1901년 판본은 건곤 2책으로 민병석(閔丙奭)의 서문, 이응익(李應翼)의 ‘본전(本傳)’, 문집이 간행되기까지의 ‘연보(年譜)’를 포함하여 6권 2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연암속집』은 남정철(南廷哲)의 ‘연암속집서’, 신기선(申箕善)의 ‘서’를 포함하여 3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 광문회에서 최남선이 『연암외집』의 ‘열하일기’를 간행한 바 있고, 1917년 김택영의 『중편 박연암선생 문집』이 간행된 바 있다.⁸⁾ 이와 함께 1932년 박영철(朴榮喆)본은 『연암집』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후대의 연암 연구에서 정본처럼 인식되어 오기도 하였다. 또한 연암 문학에 대한 번역 작업은 『대한자강회 월보』 제8호(1907.2.)~제10호(1907.4.25.)에 연재된 이종준(李鐘濬)의 ‘소설 허생전’과 ‘호질(虎叱)’ 이후 일제강점기 『문장』 제1권 제10호(1939.10.)~제2권 제12호(1947.12.)에 연재된 이윤재(李允宰)의 ‘도강록(渡江錄)’(열하일기 중 도강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연암 문학에 대한 번역 작업은 1966년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사업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암집』 간행의 시대 상황

위의 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연암 문학은 1900년 이후, 1932년 전후, 1960년대의 세 시기가 전승과 번역의 주요 전환점을 이

8) 『연암속집』 본문 시작 전 편집 교열 정보에는 ‘화개 김택영 우림, 경주 김교헌 백유 교편(校編)’, ‘전주 이민응 경행 참정(慶州 李敏應 敬行 參訂)’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석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의 <중편연암집서(重編燕岩集序)>에 대하여」, 『한문고전연구』5, 성신한문학회, 1995, pp. 115-135.

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전환점을 이룬 시기와 연암 문학의 관계이다. 달리 말해 각 시기별 전환점에는 연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만한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첫째, 1900년대 김택영의 『연암집』, 『연암속집』이 간행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연암집』 맨 앞의 민병석(閔丙奭) 서문에서는 “국조의 문장이 이로부터 일변하니 즉 박연암 선생은 남달리 뛰어나 그 무리들 가운데 두드러졌다. 삼교(三敎)에 출입하며 문장에서 구류(九流)를 꿰뚫어 능히 좌장사마씨(左莊司馬氏)의 정수를 깨치고, 속은 평이하고 실질적이며 글은 소탕하여 그 영향은 금석과 같고, 그 변화는 귀신과 같으며, 그 뜻하는 바는 봉황이 높이 날아 모든 새들이 따르고, 그 끌어들이는 기운은 장강 대하가 한 번 쏟아지매 천리를 흐르고, 그 견식은 국조의 모든 대가 중 오직 당송제가들이 물러나 바라볼 것이니 어찌 기제가 아닌가.”¹⁰⁾라고 했듯이, 그 당시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연암의 문학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책의 ‘본전(本傳)’에서 필자는 연암 생전부터 사후에 이르기까지 그의 문학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언급하면서 “찬하여 말하기를, 내가 농설, 전폐의 등 여러 작품을 읽으니 그 시국을 걱정하고 풍속을 염려하는 뜻이 원대하다. 어찌 이른바 시무의 준결(俊傑)이 아니겠는가. 오직 그 명과 시기가 때와 괴리가 있어 시행할 수 없었으니 문장에서 뛰어남이 더욱 기발하고 뛰어나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 선생으로 하여금 세상 경영을 잃게 했으나 문장을 얻었으니 그 무엇이 되리오. 홍길주가 일찍이 선생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기개는 죽히 세상을 가로지르고, 재주는 가히 천고를 놀러타며 문장은 죽히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하니 그 말이로다.”라고 하여, 연암

9) 정재철, 「김택영의 〈연암집〉 편찬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63, 한국한문학회, 2016, pp. 135-167.

10) 金澤榮 校編, 『燕巖集』序, 간행지 미상, 1900.

의 문학이 문장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국을 걱정하고, 풍속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시무책’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때 편찬된 『연암집』은 논설류와 시무 관련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00년대 김택영이 중심이 된 『연암집』은 ‘의(議), 논(論), 설(說)’ 등이 중심을 이루며, 『연암속집』에서는 ‘열하일기’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점에서 계몽의 시대 ‘시무(時務)’를 중심으로 한 편집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책은 가내(家內) 전승되던 연암 문학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계몽의 시대 연암 문학의 전승 과정은, 유학자 김택영의 시각으로 바라본 ‘문장’ 및 ‘시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암 문학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홍기문(1937)에서는 “창강의 공로가 크니 그는 경자년에 두 권짜리로 출판하고, 병진년에 중국서 세 권짜리로 고치어 출판해야 두 번씩이나 간행하였으나 그 대신 고문가(古文家)의 진부한 안목으로 취사가 타당치 못하고”¹¹⁾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둘째, 1932년 박영철본(朴榮喆本)이나 1939년 이윤재의 ‘도강록’ 번역 등은 시대 상황과 더불어 연암 문학 전승과 보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래 『연암집』은 연암이 안의현감 시절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집이 직접 출판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창작 당시 편제에서 ‘연상각선본(烟湘閣選本)’,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등 이곳 관청 이름을 붙였는데, 박영철본에서는 권1~2의 연상각선본, 권3 공작관문고, 권4~5 영대정잡영(映帶亭雜詠), 영대정임묵(映帶亭肝默), 권6~권17 별집(別集) 등 총 17권 3책으로 편집하였다. 비록 홍기문이 위의 인용문에서 원본 출처 고증 미흡과

11) 『조선일보』 1937.8.1. 홍기문, 박연암의 예술과 사상(6).

부기(附記)된 평문(評文)의 필자, 오탈자 교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책이 출판된 데에는 1930년대의 ‘고전부흥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경남(20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 고전부흥운동은 ‘조선학’, ‘민족학’ 등의 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¹²⁾, 이러한 분위기에서 연암 문학은 조선학 연구에 필요한 고전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예는 김태준(1935)이 ‘고전섭렵수감(古典涉獵隨感)’에서 조선의 학문 발전 과정을 기술하면서 “성호(星湖) 이후에는 성호의 고제(高弟)인 순암 안정복과 순암과 동년생인 여암 신경준과 이와 다소 별계(別系)인 대문호 연암 박지원 급 사검서(四檢書) 일파”¹³⁾라는 평가나, 구자균(1935)이 조선 고전문학의 계급적 관찰에서 연암의 양반전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것¹⁴⁾ 등은 이를 대표한다. 더욱이 홍기문(1937)은 연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논문에서 연암 문학이 가장 대표적인 ‘조선의 한문학’임을 주장하면서, 그의 문학이 갖는 특징을 명료하게 진술하였다.¹⁵⁾ 그는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면서도 그 당시 ‘조선문학’의 개념 정립 문제나 고전 부흥 등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였다. 그는 『조선일보』 1934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한 ‘조선문학의 양의(兩義), 민족문학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그 당시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조선문학’ 또는 ‘민족문학’의 개념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증한 바 있다. 그는 ‘조선문학’이 ‘조선어로 된 문학이냐 아니면 조선인의 문학이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증하면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조선문학이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렇

12) 김경남, 「일제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동양학』4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9, pp. 149-184.

13) 『동아일보』 1935.2.10. 천태산인, 고전섭렵수감(2) - 현실학파의 공격.

14) 『동아일보』 1935.11.21. 구자균, 조선 고전문학의 계급적 관찰(4).

15) 『조선일보』 1937.7.30. 홍기문, 박연암의 예술과 사상(4).

기 때문에 조선문학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서 민족적 특질(생활)이 반영된 문학이자 좁은 의미로 언어별(조선어로 기록된) 특질이 반영된 문학이라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범위에서 “조선의 한문학은 조선 양반의 문학이다. 조선 역사에서 양반의 시대를 절거(切去)하기 이전, 조선 민족문학으로서 한문학을 부인(否認)치 못한다.”라고 주장한다.¹⁶⁾ 이와 같은 입장에서 1930년대 연암 문학은 ‘조선문학’, ‘민족문학’, ‘조선한문학’ 논쟁의 중심지에 서 있었던 것이다.

셋째, 1960년대 『연암집』의 번역은 연암 문학의 전승뿐만 아니라 연암 문학의 보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연암 문학의 번역본은 1915년 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의 역본이 처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보다 먼저 『대한자강회월보』 제 8호~제10호(1907)에 이종준 역술(李鐘濬 譯述)의 ‘소설 허생전’이 있다. 이는 물론 김택영의 『연암집』이 간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 후 일제강점기까지의 역본 가운데 완역이 이루어진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1940년 『문장』에 연재된 이윤재의 ‘도강록’이 있으나, 이는 『열하일기』의 한 부분이며, 1946년 단행본은 이를 묶은 것이다. 이 점에서 『열하일기』 완역본은 1955년 리상호가 처음이며, 1966년 이가원(李家源)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2007년 신호열·김명호의 『연암집』 번역본에 이르러 연암 문학의 완역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60년대 전후 연암 문학의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과 관련된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시기는 한국학의 주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60년

16) 『조선일보』 1934.10.29.~11.3. 홍기문, 조선문학의 양의(兩義) · 민족문학의 의문점(1)~(4).

대 후반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법제처, 동국대 역경원 등의 기관에서 한국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국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연암 문학 보급 차원의 번역은 1960년대 전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완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¹⁷⁾, 비록 오랜 시간이나마 번역 작업은 『연암집』의 전승이나 이본(異本) 고찰¹⁸⁾과 함께 연암 문학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열하일기』 보급과 번역의 크로노토프

1) 『열하일기』 보급과 번역 양상

『열하일기』는 『연암집』에 포함된 박지원의 기행문이다. 이 작품은 김택영 간본에서는 속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1911년 조선광문회본은 유진철(兪鎭哲)이 기증한 『연암집』 권17~42까지의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⁹⁾ 책의 구성은 각 권을 한

17) 연암 문학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명호, 「〈연암집〉 번역에 대하여」, 『대동한문학』23, 대동한문학회, 2005, pp. 21-46쪽을 참고할 수 있다.

18) 김혈조, 「연암집(燕巖集) 이본(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17, 한국한문학회, 1994, pp. 157-189. 김명호, 「일본 東洋文庫 소장 『燕巖集』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5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pp. 321-347.

19) 朝鮮廣文會, 『熱河日記』, 新文館, 1911. 이 책의 표지에는 ‘연암외집 열하일기 원사본 십일책 유진철 기본(燕巖外集 熱河日記 原寫本 十一冊 兪鎭哲 寄本)’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연암외집』이 필사되어 전해진 것을 유진철이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다가 광문회에 기증했음을 의미한다. 김명호(1990), 『열하일기 연구』, 창비, p. 11. 이 책에서도 광문회본이 『열하일기』가 단독으로 출간된 최초의 것임을 밝히고 있다.

편으로 하여 총 26편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932년 박영철 간본의 분량과 비슷하다. 박영철 간본에서의 『열하일기』는 권10부터 15까지 24편의 본문과 1편의 보유(補遺)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여러 판본의 구성과 내용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연암집』의 탄생 과정과 전승에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택영 교편본에 들어 있는 이응익의 ‘본전(本傳)’에서는 연암이 정조 즉위 초 홍국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김천 연암계곡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연암’이라는 호가 생겨났으며, 정조 4년 시형(總兄) 박명원(朴明源)의 부탁으로 열하에 다녀온 뒤 ‘일기 수십 권’을 지었는데, 가히 해학과 감분을 쏟아낸 글이라는 정조의 질책과 함께 이른바 ‘문체반정’, ‘순정문(醇正文)’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정조가 연암의 제자였던 남공철(南公轍)의 문장을 보고 ‘문병기체기(文病其體奇)’하므로 ‘정벌수속(定罰收贖)’할 것을 요구하여 선생(박지원)으로 하여금 순정문 한 부를 지어 바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본전’에도 나타나듯이, 『연암집』은 연암 사후 96년에 이르러 유집(遺集) 6권으로 간행되었다.

김택영 교편본 『연암집』에는 이 작품이 들어 있지 않고, 『연암속집』의 ‘열하일기’는 전편이 아니라 일부만 발췌한 것이다.²⁰⁾ 이 점에서 조선광문회(1911)의 『연암외집 열하일기』는 이 작품의 전모를 보여준 최초의 간행본이라고 할 수 있다. 광문회본에서는 이 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 여기에는 좀 더 고증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필사본이나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본 등 현전하는 연암집류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밝히기 어려우며, 따라서 창강이 참고한 대본을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또한 광문회본도 유진철이 소장했던 필사본을 대본으로 했음을 밝혔으므로, 여러 형태의 필사본이 전승되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연암외집 열하일기 원사본 11책 유진철 기본]

정묘(正廟) 4년 경자 여름 6월, 정사 금성위 박명원(朴明源), 부사 권함(權啗), 이조판서 정원시(鄭元始), 서장관 겸 장령(掌令) 조정(趙鼎鎭)을 파견하여, 청의 진료 7순을 진하(進賀)할 때, 선생은 정사를 따라 연경에 이르렀다. 청제가 이미 피서지 열하로 갔으므로 삼사가 급히 그곳에 갔다. 드디어 태학관으로 가서 홍려사 소경 조광련(鴻臚寺少卿 趙光連), 벼슬하지 않던 왕민호(王民俾) 등과 담론하고 팔월 동으로 돌아와 그 후 여행 중 기록한 것이 이 글 26편이다.²¹⁾

이 글과 같이 『열하일기』는 1780년(정조4년) 진하사 박명원(朴明源)을 수행하며 지은 글이다. 위의 글에서는 연암의 여정을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그 여정은 말 그대로 험난한 과정이었다. 『정조실록』 권10, 정조4년 9월 17일 임진 두 번째 기사에는, 박명원과 부사 정원시의 장계가 실려 있는데, 8월 1일 연경에 도착하여 표문을 올리자, 황제가 5월 초9일 피서지 열하로 갔기 때문에 수행원 수를 줄여 초9일까지 급히 열하에 이르고, 11일 행재소에서 황제를 알현하기까지의 일정, 황제의 칙지를 받은 일, 8월 28일 황제가 열하에서 출발하여 연경으로 돌아올 때 노상에서 황제를 영접한 일, 9월 5일 연경으로 돌아와 17일 귀국에 이르기까지 사신단의 여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뜻하지 않은 열하행뿐만 아니라 황제를 만나 진하(進賀)하기까지의 과정, 칙지와 하사(下賜)를 받고 귀국하기까지의 상황이 힘든 여정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열하일기』는 1780년의 연암의 연행일기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전이 그렇듯이, 그 작품이 재평가되는

21) 朝鮮廣文會(1911), 앞의 책, 正廟四年 庚子 夏六月 遣正使 錦城尉 朴明源 副使 權啗(권함) 吏曹判書 鄭元始(정원시) 書狀官 兼 掌令 趙鼎鎭 賀清乾隆帝 七旬于時 先生 從正使 以行比至燕京 清帝已避暑往熱河 三使疾遄赴之 遂往館于太學 與鴻臚寺 少卿 趙光連 布衣王民俾 等 橫豎談論事峻 以八月東還 摺撫行中所記作此書 二十六編.

것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통시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김택영 교편 『연암집』 이후 1907년 『대한자강회월보』 제8호~제10호의 ‘소설 허생전’(역술), ‘호질’(한문)을 시작으로, 조선광문회(1911)의 『열하일기』 간행 이후의 일이다. 그 후 1932년 박영철본, 1939~40년 이운재의 ‘도강록’ 번역 등이 이어지고, 1955년 리상호 역본, 1966년 이가원 역본(민족문화추진회) 등이 등장하면서 이 작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한문본 및 번역본 출현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열하일기 보급 및 번역 과정]

연도	편자/번역자	제목/ 출처	분량	대상	언어	발행자
1907	이중준 (李鍾濬)	소설 허생전, 호질/ 대한자강회월보 제8호~제10호	3회 연재	일부	허생전 (역술), 호질 (한문)	대한자강회 월보 사무소
1911	조선광문회 (최남선)	열하일기	1책	전재	한문	신문관
1915	아오야기 쓰나타로 (靑柳綱太郎)	연암외집 상(燕巖外集 上)	1책	초록	일본어 역(譯)	동양문고
1939 ~40	이운재 (李允宰)	도강록/ 문장 제1권 제10호~ 제2권 제12호	10회 연재	일부	국역	문장사
1946	이운재 (李允宰)	도강록 (渡江錄)	1책	초록	국역 ²²⁾	대성 출판사
1947	이운재 (李允宰)	양반전 (兩班傳)	1책	초록	국역	조선금융 조합
1948	김성칠 (金聖七)	열하일기 (熱河日記)	1책	초록	국역	정음사

1955	리상호	국립출판사	3책	전재	국역	국립출판사
1966	이가원 (李家源)	국역 열하일기 (國譯 熱河日記)	2책	전재	국역	민족문화 추진회
1973	이가원	국역 열하일기	3책	전재	국역	대양서적
1987	今村與志雄)	열하일기	2책	초록	일본어 역	평범사
1980 ~81	임정기· 이이화· 이재수· 정기태	열하일기	5책	전재	국역	민족문화 추진회
1982 ~84	윤재영 (尹在瑛)	열하일기	5책	전재	국역	박영사 (문고)
2009	김혈조	열하일기	3책	전재	국역	돌베개

이 표에 정리한 한문본은 조선광문회본과 1932년 박영철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역본은 완역본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열하일기』 한문 영인본과 국역본은 이 표에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다. 특히 일부 작품만을 선별한 것과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또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 등을 포함하면 대략 220종이 존재하며, 그와 관련한 연구서도 적지 않다.²³⁾ 그러나 본격적인 번역본의 출현은 1939~

22) 이윤재, 『도강록』, 대성출판사, 1946. 이 책은 1939~40년 『문장』제1권 제10호~제2권 12호까지 10회 연재본을 엮은 것임.

23) 『열하일기』와 관련된 발췌 번역(초록)본은 매우 많다. 널리 읽히는 것으로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2008),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상하), 그린비, 허경진 역(2009), 『열하일기』, 현암사 등이 있다. 각종 번역본에서 선별한 작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서 선별한 작품의 분포와 선별 방식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번역의 시공간과 구조(크로노토프)’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의 후속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0년 이윤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완역본의 경우 1955년 이상호 역본과 1966년 이가원 번역의 민족문화추진회본 이후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완역본의 경우 번역본마다 체제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열하일기』의 전승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번역의 중심을 이루는 한문본 조선광문회본과 박영철본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한문본의 체제]

광문회본(1911)	박영철본(1932)
1) 도강록(연암집 권17)	1) 도강록
2) 성경잡지(권18)	2) 성경잡지(盛京雜識)
3) 일신수필(권19)	3) 일신수필(駙沕隨筆)
4) 관내정사(권20)	4) 관내정사(關內程史)
5) 막북행정록(권21)	5)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6) 태학유관록(권22)	6)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7) 환연도중록(권23)	7)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
8) 경개록(권24)	8) 경개록(傾蓋錄)
9) 황교문답(권25)	9) 황교문답(黃敎問答)
10) 반선시말(권26)	10) 반선시말(班禪始末)
11) 찰십륜포(권27)	11) 찰십륜포(扎什倫布)
12) 망양록(권28)	12) 행재잡록(行在雜錄)
13) 심세편(권29)	13) 망양록(忘羊錄)
14) 곡정필담(권30)	14) 심세편(審勢編)
15) 산장잡기(권31)	15) 곡정필담(鵠亭筆談)
16) 환희기(권32)	16) 산장잡기(山莊雜記)
17) 피서록(권33)	17) 환희(幻戲)
18) 행재잡록(권34)	18) 피서록(避暑錄)
19) 회본명목(定本入於山莊雜記 中, 권35)	19) 구외이문(口外異聞)
20) 구외이문(권36)	20) 옥갑야화(玉匣夜話)
	21) 황도기략(黃圖記略)

21) 옥갑야화(권37)	22) 알성퇴술(謁聖退述)
22) 금료소초(定本 脫去, 권38)	23) 양엽기(盎葉記)
23) 황도기략(권39)	24) 동란섭필(銅蘭涉筆)
24) 알성퇴술(권40)	25) 보유 열하일기(補遺 熱河日記: 천애결린집(天涯結隣集), 금료소 초(金蓼小抄), 열하궁전기(熱河宮 殿記), 열하대학기(熱河大學記), 단루필담(段樓筆談) ²⁴⁾
25) 양엽기(권41)	
26) 동란섭필(권42)	

이 표에서 확인되듯이, 조선광문회본(1911)은 유진철 사본 권17~42를 각 편으로 하여 26편의 구성을 취했다. 이에 비해 박영철 본(1932)은 ‘열하일기 보유(補遺)’를 포함하여 25편으로 구성했는데, 그 후 번역본의 경우 ‘보유’ 가운데 ‘금료소초’를 제외한 다른 작품은 번역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2) 『열하일기』 번역의 크로노토프

이 연구는 연암 문학의 전승과 보급 과정, 『열하일기』 번역의 시공간 구조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일반적으로 기행문학의 시공간 읽기는 여정과 회고, 상상의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적 시공간과 작품 전체를 망라한 시대의식, 사회적 상황 등 시간과 공간 관련 전반적 요소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기행문학을 읽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번역본의 경우 원전과 번역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달리

24) ‘보유’의 경우 목차에는 5편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금료소초’만 실려 있다.

25) 김경남, 「근현대 기행문학의 크로노토프적 재현과 상상력의 의미」, 『한국어문교육연구』42,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3, pp. 207-240.

말해, 번역본 읽기는 저자와 독자 이외에 번역자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셈이다. 더욱이 한문 고전 번역은 같은 작품일지라도 번역자에 따라 그 결과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연암 문학은 탄생과 전승 과정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뿐만 아니라 원작품이 갖고 있는 문체상의 특징 등으로 인해, 더 다양한 형태의 번역물이 산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호(2005)에서는 『연암집』 번역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신호열·김명호 번역본 『연암집』을 펴내면서 ‘전문적인 학술 번역’ 차원에서 『연암집』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살피고자 하였다.²⁶⁾ 논문에서 학술 번역 차원의 주요 문제로 제기한 것은, 한문 번역의 일반적인 문제인 ‘이본(異本) 비교’, ‘필사 또는 인쇄상의 오자(誤字), 탈자(脫字), 연문(衍文: 잘못 들어간 글귀), 연자(衍字: 군더더기 글자)’, ‘인지명, 서명(書名), 원전 인용 등의 오류’, ‘편집상의 실수’ 등이다. 물론 번역 과정에서 ‘창작 시기나 배경, 소재와 주제, 작품 상호 관계’ 등을 설명하거나, ‘난해하고 심오하여 오역하기 쉬운 대목’에 대한 해석과 근거 제시 등의 작업이 학술 번역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술 번역의 차원에서 한문 번역은 원전을 얼마나 정확하고 쉽게 풀어내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행문학 읽기의 차원에서 『열하일기』의 번역본이 시대와 사회, 번역자에 따라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발상을 증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 번역본이 나타나는 시대와 사회, 해당 번역본의 특징, 그 번역본에서 구현한 시간과 공간 등을 살피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열하일기』의 번역사, 발췌 번역과 완역의 비교 등은 중

26) 김명호, 「〈연암집〉 번역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3, 대동한문학회, 2005, pp. 21-46.

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번역사는 이 작품이 번역되는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발췌 번역의 경우 번역자가 왜 그 부분을 발췌했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완역의 경우 역본의 문체와 서술 방식뿐만 아니라 번역자의 태도(독자 지향적인가 아니면 학술 지향적인가 등)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번역사의 관점에서, 『열하일기』가 국문으로 처음 번역된 것은 1907년 이종준의 ‘허생전’부터였다. ‘소설’이라는 제목을 붙여 번역한 이 작품은 그 당시 전형적인 역술(譯述) 문체인 한문 중심의 현토체(懸吐體)로 번역되었는데,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번역자의 평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한자강회월보』 제8호~제9호의 역술자는 이종준으로 나타나며, 제10호에서는 ‘이만무(李晩茂) 역’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만무는 이종준의 호로 추정된다. 이처럼 김택영 교편본 이후 ‘허생전’이 번역된 것은 이 시기 연암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00년 교편본이 나온 후, 『황성신문』에 언급된 연암과 관련 평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1900년대 『황성신문』에 나타난 연암]²⁷⁾

- ㄱ. 독호질일탄(讀虎叱一嘆): ‘호질’을 읽고 탄식함. 박연암집 중에 골계문 한 편이 있으니, 이름은 호질이다. 비분속탕(悲憤疎宕)하여, 희롱하고 꾸짖는 소리와 같으며, 풍자의 뜻이 있고 성을 내는 것과 같아 늠름함이 범과 같을 수 없으니, 가히 천고의 기문(奇文)이다.(중략) 이것을 일컬어 호랑이가 사람을 먹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먹는 것보다 많지 않다고 하니, 이 어찌 천고의 기문이 아니리오. 평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고 할 것이라고 하더라. -1901년 6월 29일 논설.
- ㄴ. 환술(幻術): 박연암 열하일기에 이르기를 환법(幻法)은 대개 상고

27) 『황성신문』 소재 자료는 현토체에 가까운 국한문체이며, ㄱ-ㄴ은 연구자가 현대어로 번역한 것임.

시대로부터 이런 요술에 능한 사람이 있어, 작은 귀신을 부려 사람의 눈을 현혹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환술이라고 하였다. (중략) 대저 환술은 세상에 모두 있는 것이나 즉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하는 간악한 도적일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혼암 우매한 사람은 그 환술에 유혹되어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까닭에 옛날 성왕이 이를 두려워하여 예방하기를, 좌도 요술로 무릇 사람들을 혹되게 하면 주살하여 그 형을 사면하지 않았으나 후세 법도와 윤리가 해이해져, 이에 좌도 요술로 공공연히 대낮에 행하건대, 오직 죄를 벌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권세를 높이고 녹을 더하니 세상의 도리가 이에 이르러 어찌 한심하지 않으며,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이에 환술을 간단히 서술하여 세상에서 환술을 좋아하고 환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 1903.11.2.~3. 논설.

- ㄷ. 미록(麋鹿) 변해: 박연암의 <열하일기>를 보면 청국 인조황제 건륭 연간에 미록의 용(茸)을 의심하여 천하에 명을 내려, 무릇 문자에 녹방(鹿傍: 녹을 변으로 쓰는 것)을 가진 것은 모두 잡아가 해자(海子: 남해자 동산)에 길러 구별하고, 서로 교접하지 못하게 했더니 하지에 이르러 미와 녹이 모두 같은 때에 뿔이 빠지고, 동지에 뿔이 빠지는 것은 주(麋)이다.²⁸⁾ (중략) 지금 마땅히 하지의 계절을 맞아 이로써 사슴의 뿔이 빠질 시기이며 매년 조정으로부터 특히 녹엽위원(鹿獵委員)을 강원과 함경도 등지에 파견하여 산포수와 순검 색리 등 사오십 명을 거느리고 산곡에 모여들어 사슴뿔을 채취하니 그들이 지나간 지방은 읍리가 소요하고 촌락이 피폐하여 닭과 돼지가 남아있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다고 하니, 대저 녹용이 어떤 선약이길래 이처럼 해를 끼치며 해마다 수렵에 산록의 무리가 또한 살아 숨 쉬지 못하고 멸종하니 어찌 개탄스럽지 아니한가. - 1905.6.21. '미록변해'

『황성신문』에는 몇 차례 박연암과 관련한 언급이 등장하는데,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28) 여기에서 언급한 열하일기는 구외이문(口外異聞)의 '주각해(麋角解)'이다.

평하거나 내용을 소개한 것들이다. 세 편의 글은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질’을 논설에 포함한 의도는 사람의 마음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 환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것, 조정에서 녹엽위원을 파견하여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것 등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열하일기』가 처음 번역되는 시점에서 번역자의 의도는 ‘애국’, ‘계몽’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이종준이 ‘허생전’을 번역한 의도와도 같다. 달리 말해 번역의 시공간이 그 시대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산하게 됨을 의미한다.

근대 계몽의 시대를 지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고전부흥운동 이후 『열하일기』에 대한 언문일치체의 최초 번역은 이윤재(李允宰)에 의해 이루어졌다. 1939~40년 『문장』 제1권 제10호부터 제2권 12호까지 10회에 걸쳐 연재된 이 번역본은 ‘도강록(渡江錄)’을 번역한 것인데, ‘조선 한문고전 역초(譯抄)’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이윤재는 ‘도강록’ 이외에도 다수의 한문 고전 번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다른 작품이 번역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 『문장』에는 가람 이병기에 의해 ‘춘향전’, ‘한중록’ 등이 ‘고전’이라는 명칭 아래 주해·연재되었으며, 국문본 ‘요로원야화기’를 대화체로 고쳐 발표한 작품이 확인된다. 이윤재의 번역은 문장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평소 그가 애독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열하일기』였고, 그 가운데 ‘도강록’ 부분은 여정의 일부이면서도 그 자체로 호기심, 활달, 때로는 비장함 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윤재 번역본의 경우 민족문화추진회본(이가원, 1966)에서 추가된 ‘연암집 서’, ‘도강록 서’ 등이 들어 있지 않고, “우리 성상 4년(청 건륭 45년) 6월 24일 신미. 조소우(朝 小雨). 온종일 비가 오다 말다 하다.”로 시작한다.²⁹⁾ 즉

29) 허경진 옮김, 『열하일기』, 현암사, 2009. 이 책에서는 ‘열하일기 서’는 연

번역본의 시공간이 ‘도강록’에서 제시한 시공간으로 한정될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년 조선어학회) 이후 언문일치체에 맞게 고전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셈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1955년 리상호본 이후 출현한 완역본은 번역자의 의도와 번역 방식에 따라 작품 구성 및 문체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리상호 역본(1955), 이가원 번역 민족문화추진회본(1966), 윤재영 역본(1982), 김철조 역본(2009)가 대표적이며, 이 네 가지 역본의 목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완역본 목차 비교]

역본	리상호 역본 (1955)	이가원 역본 (1966)	윤재영 역본 (1982)	김철조 역본 (2009)
책수	3책	2책	문고 5책	3책
구성	1) 압록강을 건너서 2) 성경의 이모저모 3) 일신수필 4) 관내에서 본 이야기 5) 북으로 북으로 6) 태학관에 머물면서 7) 북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서	1) 도강록 2) 성경잡지 3) 일신수필 4) 관내정사 5) 막북행정록 6) 태학유관록 7) 환연도중록 8) 경개록 9) 심세편 10) 망양록 11) 흑정필담 12) 찰십륜포 13) 반선시말	1) 도강록 2) 성경잡지 3) 일신수필 4) 관내정사 5) 막북행정록 6) 태학유관록 7) 환연도중록 8) 경개록 9) 황교문답 10) 반선시말 11) 찰십륜포 12) 망양록 13) 심세편	1) 압록강을 건너며(渡江錄) 2) 심양의 이모저모(盛京雜識) 3) 말을 타고 가듯 빠르게 쓴 수필(駟汛隨筆) 4) 산해관에서 북경까지의 이야기(關內程史) 5) 북경에서 북으로 열하를 향해(漠北行程錄)

민 이가원의 ‘연암 산방본’에만 이 글이 실려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가원 역본인 민족문화추진회본에서 이 글이 처음 번역된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다만 ‘열하일기 서’는 1955년 리상호본에서 번역된 바 있는데, 이윤재의 번역에서는 이 부분은 들어 있지 않다.

8) 경개록				6) 태학관에 머물며(太學留館錄)
9) 황교문답				7) 북경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還燕道中錄)
10) 반선시말				8) 열하에서 만난 중국 친구들(傾蓋錄)
11) 찰십륜포	14) 황교문답	14) 곡정필담		9) 라마교에 대한 문답(黃敎問答)
12) 행재잡록	15) 피서록	15) 산장잡기		10) 반선의 내력(班禪始末)
13) 심세편(審勢編)	16) 피서록 보	16) 환희기		11) 반선을 만나다(札什倫布)
14) 망양록	17) 양매시화	17) 피서록		12) 사행과 관련된 문건들(行在雜錄)
15) 곡정필담	18) 동란섭필	18) 행재잡록		13) 천하의 대세를 살피다(審勢編)
16) 산장잡기	19) 옥갑야화	19) 희본명목		14) 양고기 맛을 잊게 한 음악 이야기(忘羊錄)
17) 요술구경	20) 행재잡록	20) 구외이문		15) 곡정과 나눈 필담(鶴汀筆談)
17) 피서록(避暑錄)	21) 금료소초	21) 옥갑야화		16) 피서산장에서 기행문들(山莊雜記)
18) 구외이문	22) 환희기	22) 금료소초		17) 요술놀이 이야기(幻戲記)
19) 황도기략	23) 산장잡기	23) 황도기략		18) 피서산장에서 쓴 시화(避暑錄)
20) 공자묘를 참배한 감상	24) 구외이문	24) 알성퇴술		19) 장성 밖에서 들은 진기한 이야기(口外異聞)
21) 양엽기	25) 황도기략	25) 양엽기		20) 옥갑에서의 밤 이야기(玉匣夜話)
22) 동란섭필	26) 알성퇴술	26) 동란섭필		
23) 금료소초	27) 양엽기			

				21) 북경의 이모저모(皇圖記略) 22) 공자 사당을 참배하고(謁聖退述) 23) 적바림 모음(盞葉記) 24) 동관재에서 쓰다(銅蘭涉筆) 25) 의약처방 기록(金蓼小抄)
문체 (번역 방식)	우리말로 풀어 낸 경우가 많으 며, 필요할 경우 한자를 괄호 속 에 병용함	한자어 사용 빈 도가 높으며, 한 자를 병용함	한자어 사용 빈 도가 높으며, 한 자를 병용함	우리말로 풀어낸 경우가 많으며 한 자를 병용하고, 역 사 용어 및 난해한 구절 등을 주석함
대본	광문회본과 박 영철본 비교	이가원 고증	광문회본	박영철본

각 역본에서는 ‘머리말’에서 번역의 기준이 된 판본을 소개하고 있는데,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리상호 역본은 조선광문회본과 박영철본을 비교하여 재구성했고, 이가원 역본은 두 판본 비교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고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특히 이가원 역본은 1960년대 ‘한국학 제건 논쟁’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추진회를 비롯한 번역 기관의 탄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윤재영 역본은 조선광문회본을 대본으로 하였으며, 김혈조 역본은 박영철본의 ‘연상각선본’을 대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역본은 대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리상호 역본의 경우 ‘심세편’을 ‘망양록’ 앞에 둔 이유로 “이 부분은 열하일기 중편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허생전’이 실려 있는 ‘옥갑야화’를 별도의 편(編)으로 구성하지 않고, ‘구외이문’에 속한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하였다. 네 개의 번역본에서 판본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편은 ‘금료소초’(의약처방)인데, 두 개의 번역본에서는 이 편을 맨 마지막에 둔 데 비해, 다른 두 판본은 앞부분으로 옮겨 놓았다. 맨 뒤에 둔 것은 박영철본의 체제가 반영된 셈이며, 앞부분으로 옮긴 것은 ‘보유(補遺)’ 부분에 대한 고증이 반영된 것이다. 네 개의 번역본은 체제뿐만 아니라 문체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리상호 역본과 김혈조 역본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가급적 우리말을 많이 사용했다. 이에 비해 이가원 역본과 윤재영 역본은 학술 고증 차원에서 정확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혈조 역본은 독자와의 소통을 고려한 풀어 옮기기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주석과 풀이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할 때, 같은 작품을 번역하더라도 번역본마다 번역 시기와 번역어 사용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번역의 시간과 공간은 작품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 이 점에서 번역은 단순한 정보 전달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의적인 활동이 되는 셈이다.

4. 결론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번역본을 대상으로, 번역의 시간과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연암 문학은 정조의 ‘문체반정’, ‘순정문’에 대한 요구 등 일련의 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 후기 새롭게 독특한 글쓰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연암 문학이 문집 형태로 구성되어 온전히 전승되지 못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연암 문학의 전승과 보급 과정을 살펴볼 때, 문집 간행이나 번역은 그 활동이 이루어진 시대의 상황이나 번역자의 의도가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보급 번역의 시간과 공간이 연암 문학의 가치를 높여 왔으며, 번역 활동도 단순히 연암 문학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번역물 자체가 가치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암의 문집인 『연암집』의 사후 96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자 박규수가 중심이 되어 경사진신(京師摺紳)의 출연으로 간행되었으나, 이때 만들어진 문집이 온전히 전해진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00년 김택영이 교편(校編)한 『연암집』이 간행된 이후, 그의 문학은 근대의 계몽담론과 맞물려 식자층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그후 1911년 조선광문회의 『열하일기』, 1932년 박영철의 『연암집』 등이 간행되었고, 광복 이후 다수의 영인본과 번역본이 출현하였다.

둘째, 시기별로 볼 때 연암 문학의 전승과 보급 과정은 1900년 이후, 1932년 전후, 1960년대의 세 시기가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대 김택영 교편본의 등장은 그 당시 유학자이자 계몽사상가의 입장에서 연암의 ‘시문(時文)’이 ‘시무(時務)’에 적합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후대 홍기문의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교편본은 내용면에서 ‘시문(時文)’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개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2년 박영철 간행본은 고전부흥운동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문집이 간행된 이후 고전 번역 차원에서 이윤재의 ‘도강록’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는 한국학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국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했고 다수의 번역기관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연암 문학의 번역은 또 한번의 전환기를 만난다.

셋째, 『연암집』 소재 『열하일기』 보급과 번역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열하일기』에 대한 관심은 김택영 교편본 이후 1911년 조선광문회본, 1915년 아오야기 쓰타나로의 『연암외집』(일본어본) 등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문 번역의 경우 1907년 『대한자강회월보』 제8호~10호에 연재된 이종준의 ‘소설 허생전’(옥갑야화 소재)이 나타나며, 1939년 이운재의 ‘도강록’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작품이 국문으로 완역된 것은 1955년 리상호본이 처음으로 보이며, 그 후 1966년 이가원 번역 민족문화추진회본, 1982년 윤재영 역본, 2009년 김철조 역본이 이루어졌다.

넷째, 『열하일기』의 국문 번역과 관련하여 번역의 시공간 문제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번역사를 고려할 때, 1900년대의 경우 연암 문학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경세(經世)’와 관련한 시문(時文)이 주목을 받았고, ‘허생전’(옥갑야화 소재)이 번역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을 반영한 셈이다. 이 점에서 『황성신문』 1901년 6월 29일 논설 ‘독호질일탄’(호질: 관내정사 소재), 1903년 11월 2일 ~3일의 ‘환술’(환희기 역술), 1905년 6월 21일 ‘미록변해’(구외이문의 주각해) 등이 등장한 점은 흥미를 끈다. 1939년 이운재의 ‘도강록’ 번역은 고전부흥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번역 연재물의 제목에서 ‘조선 한문고전 섭렵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1955년 리상호 역본 이후의 완역본들은 그 자체로서 연암 문학을 재현할 뿐 아니라 번역의 시대 상황, 번역자의 의도와 문체 등이 반영되면서 한 편의 새로운 번역물로서의 가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완역본의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작품의 체제와 구성, 문체뿐만 아니라 연암이 사용했던 풍자적이고 흥미로운 표현은 번역자마다 독특한 언어의 번역물로 나타날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발췌 번역의 경우 연암이 설정한 작품의 시

공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시공간이 설정된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시공간 구조, 즉 크로노토프의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열하일기』 완역본에 대한 세밀한 비교, 발췌 번역 조사 및 특징 연구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후속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지원 저, 경인문화사, 『연암집』, 경인문화사, 1974.
 박지원 저, 경희출판사, 『연암집』, 경희출판사, 1966.
 박지원 저,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그린비, 2008.
 박지원 저, 김승렬 교정, 『연암집』, 보사본(補寫本), 1922.
 박지원 저, 김택영 교편, 『연암집』, 간행지 미상, 1900.
 박지원 저, 김택영 편, 『연암속집』, 간행지 미상, 1901.
 박지원 저, 김택영 편, 『중편 연암선생 문집』, 한목서림, 1917.
 박지원 저, 김철조 역, 『열하일기』1-3, 돌베개, 2009.
 박지원 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암집』, 문예원, 2012.
 박지원 저, 리상호 역, 『열하일기』1-3, 국립출판사, 1955.
 박지원 저, 박영철 편, 『연암집』, 박영철방(朴榮喆方), 1932.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연암집』, 돌베개, 2007.
 박지원 저, 윤재영 역, 『열하일기』1-5, 박영사, 198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국역 열하일기』1-2, 민족문화추진회, 1966.
 박지원 저, 이민수, 『연암선집』, 통문관, 1956.
 박지원 저, 이윤재 역, 『도강록』, 대성출판사, 1946.
 박지원 저, 조선광문화, 최남선 편, 『연암외집 열하일기』, 신문관, 1911.
 박지원 저, 홍기문 역, 『박지원작품집』1-2, 문예출판사, 평양, 1991.
 박지원 씬, 홍기문 옮김, 『나는 꺾꺾 선생이래오』, 보리, 2004.
 朴趾源 著, 今村與志雄 譯, 『熱河日記』1-2, 東洋文庫, 東京, 1987.

2. 논문

- 김경남, 「일제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양학』41, 2019, pp. 149-184.
- 김경남, 「근현대 기행문학의 크로노토프적 재현과 상상력의 의미」,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국어문교육연구』42, 2023, pp. 207-240.
- 김명호, 「〈연암집〉 번역에 대하여」,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23, 2005, pp. 21-46.
- 김명호, 「일본 東洋文庫 소장 『燕巖集』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51, 2010, pp. 321-347.
- 김철조, 「연암집(燕巖集) 이본(異本)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17, 1994, pp. 157-189.
- 오석환,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의 「중편연암집서(重編燕巖集序)」에 대하여」, 성신한문학회, 『한문고전연구』5, 1995, pp. 115-135.
- 정재철, 「김택영의 〈연암집〉 편찬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63, 2016, pp. 135-167쪽.

3. 단행본

-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조각, 1988.
- 김명호, 『열하일기연구』, 창비, 1990.
- 윤숙희, 『크로노토프』, 시공문화사, 2009.

(투고일: 2024. 11. 19 심사완료일: 2024. 12. 17 게재확정일: 2024. 12. 23)

김경남
소속: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주소: (48513)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인문사회대학 508호
전자우편: surhera@hanmail.net

[Abstract]

Chronotope Reflected in the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of Park Yeon-am's *Yeolha Ilgi*

Kim, Kyung-Na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irth and transmission process of Yeonam Park Ji-won's *Yeonamjip*(燕巖集) and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of *Yeolha Ilgi*(熱河日記), and to compare major complete translations of *Yeolha Ilgi*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Yeonam's literature is widely known through the 'Munchebanjeong(文體反正, literature reform)' of the Jeongjo era and various stories contained in *Yeolha Ilgi*,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actual birth and transmission process of *Yeonamj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Yeolha Ilgi*. It is known that this anthology was first published in 1900 as *Yeonamjip* by Kim Taek-yeong, but this edition was not a complete collection but an excerpt, and it was widely distributed after Park Yeong-cheol published a new type edition in 1932. The *Yeolha Ilgi* included in this anthology was partially covered in Kim Taek-yeong's *Yeonamsokjip*(燕岩續集) in 1901, and in 1911, Joseon Gwangmunhoe published this diary as a separate book.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chronotope inherent in the major complete translations, that is, the meaning of the time and space within the work in terms of the consciousness of the times and the social atmosphere.

Key words : Yeonam Park Ji-won, *Yeonamjip*, *Yeolha Ilgi*,
Transmission, Translation, Chronotope